조계총림 제8대 방장 현묵 대종사 승좌

송광사 4월 24일 승좌법회
현묵 스님 "목우가풍 선양"
현봉 대종사 1주기 다례재
보살계 수계산림 함께 봉행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총림 제8대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가 조계산의 법좌에 올랐다.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4월 24일 대웅보전에서 제8대 방장 현묵 스님 승좌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불기 2569년 보살계 수계산림, 제815주기 불일 보조국사 종재도 함께 봉행됐다.

이날 승좌법회를 통해 법상에 오른 방장 현묵 스님은 자신의 출가와 수행 이력을 회고하며 "송광사는 목우가풍(牧牛家風)을 계승한 맑고 향기로운 가풍을 지닌 도량"이라며 "옛 선사님들의 참뜻을 되새기며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원성불도·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행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4월 24일 봉행한 제8대 방장 승좌법회에서 현묵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방장 스님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승좌법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이 참석해 송광사 도량을 가득 채우고, 보조국사 종재에도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송광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1박 2일로 진행됐다. 참가 대중은 보살계 수계산림의 일환으로 전날 입재식과 함께 10중대계 및 88계에 대한 법문을 들었으며, 새벽예불 후 보살계 관정의식과 수계식을 통해 보살계를 수지했다.

승좌법회 후에는 대웅전 앞마당에서 법성도 요잡에 이어, 국사전으로 이동해 보조국사 종재가 봉행됐다. 종재는 방장 현묵 스님의 보조국사 영정에 헌화를 시작으로 본말사 스님들의 헌다와 헌화가 이어졌으며, 송광사의 선맥을 기리는 의미 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송광사는 4월 20일 조계총림 제7대 방장을 역임한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원적 1주기를 추모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는 이날 대종사의 일화와 회상을 담은 추모집 〈조계산의 웃음소리〉를 편찬해 영전에 봉헌하며 감사와 그리움을 전했다.

문도를 대표해 상좌 연제 스님은 "오고 가는 것이 일상의 일이지만 그리움이 가슴 속에 밀려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며 "그리움에 빠지면 스님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리움을 돌이켜서 그리움이 일어난 자리를 본다면 스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의례 편리화 심각…전통다비 보존 필요"

전통다비 학술대회 좌담회서
무공, 원명 스님 등 주장해
"다비, 무형유산 지정 시급"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비용 문제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전통다비 의식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4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 주최로 열린 전통다비 학술대회 좌담회에서는 전통다비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 스님들의 주장이 쏟아졌다.〈사진〉

학술대회 앞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이 패널로 나섰다.

국가유산청 무형문화유산위원이기도 한 원명 스님은 소멸 위기의 전통다비를 보존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원명 스님은 "삭발부터 열반까지 의례가 아닌 것이 없다. 특히 다비는 불교의례의 꽃"이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최근 한국불교의 의례는 편리·편의주의에 빠져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변화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다비가 제대로 전승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하다"며 "전통다비의 전승과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공 스님(다비작법보존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조선 후기 선지식 백파 긍선(1767~1852) 스님은 백양사에 주석하며 〈작법귀감〉을 저술해 각종 불교의례와 작법이 오롯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편리주의로 인해 의례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에 관심이 쏠려있다. 그렇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여법하게 이뤄지는 전통다비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통해 전승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10·27법난기념관 치유 상생 공간되길"

조계종, 설계공모 시상식

10·27법난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공간인 10·27법난기념관의 설계를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이 맡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10·27법난기념관 건립 설계공모 시상식'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에 당선증을 수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스님을 폭압한 사건"이라며 "기념관이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치유하며,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미얀마 지진 현장 처참…인도적 지원 논의"

조계종복지재단 기자간담회서
지진피해 현지조사 결과 발표
생필품 · 의료품 등 부족 가속
조계종, 동행과 2차 지원 검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이 4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얀마 현지 피해 상황과 구호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4월 8~16일 미얀마 지진피해 긴급구호 합동선발대로 현장을 찾았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이 4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지 상황과 구호 현황을 공유했다. 묘장 스님은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프라미스와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만달레이와 인레, 사가잉 지역 등을 찾아 7박 9일 간 구호활동을 펼쳤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3월 28일 미얀마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7.7 규모의 지진으로 4월 14일 오후 6시 기준 사망자 3706명, 부상자 5027명, 실종자 130명이 발생했다. 주거, 식수, 의료 등 생존기반이 붕괴됐으며 다수의 불교 사찰이 무너지고 스님들도 희생된 상황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묘장 스님은 미얀마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스님은 "도착한 날에도 4.4규모의 여진이 발생했고, 며칠 후 5.5 규모 여진을 경험했다"면서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아직도 현장에는 무너진 건물 사이로 사망자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선발대 파견에서 3만2684달러, 한화 약 46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자금은 재단 1만 달러, 전국비구니회 1000만원, 사단법인 자비명상 500만원, 어린이집원장협의회 100만원, 더프라미스 1만 1832달러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4월 8일 인천공항을 출국, 4월 9일 미얀마 양곤에 도착한 선발대는 50kg 쌀 200포대를 비롯해 라면과 간식, 위생용품을 마련했다. 이후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지인 만달레이로 이동해 현지 스님들과 구호일정을 조율했다. 이어 쌀과 식용유, 물, 모기장, 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2차 구입해 피해 사찰을 찾아 이를 전달했다.

4월 12일에는 만달레이 지진 대피소를 방문해 물품을 전했다. 특히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필요한 진통제와 비타민, 구충제 등 의약품을 배분하는데 신경 썼다. 4월 13~14일에는 인레 호수 대피소를 찾았다. 수상가옥이 건립된 호수는 전체 가옥 중 70%가 수몰된 상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인레 대피소 4곳에 쌀 600포대와 식용유 200통, 간식, 라면, 비누 등을 지원했다.

묘장 스님은 "미얀마는 내전으로 정치상황이 좋지 않고, 군부정권의 통제가 심해 제약이 많지만 사찰과 스님들에게는 호의적인 만큼 현지 불교계와 적극 협력해 인도적 지원을 해나가려 한다"면서 "조계종 사회부와 함께 지원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자비나눔 도량 원각사 새롭게 문 열다

4월 19일 이전 개원법회
성파 종정예하 교시 내려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온 조계종 원각사가 520년 만에 여법한 법당을 재건하고,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을 담당할 자비도량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원각사(주지 원경 스님)는 4월 19일 탑골공원 내 원각사 10층 석탑 앞에서 '원각사 신축 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도심포교와 복지실천의 본격 행보를 알렸다.〈사진〉

법회에는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과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제정·종원 스님,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주지 원경 스님은 "전전긍긍 임대의 세월을 보내다가 바야흐로 이렇게 새 터전을 마련하고, 원각사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기반과 초석이 생겨 감격스럽다"며 "이 모든 것은 봉사자·후원자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공양시방제중생(供養十方諸衆生)'이라는 교시를 통해 "세계 모든 중생에게 공양하듯 보살행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원각사 신축 이전 불사에 기여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민일영 전 대법관과 강위동 원각사 후원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내영 기자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宗正禮敬室長 東虛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 正 智山,海耕,雲岩,知足,智巖,修庵,圓默
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
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 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 員 法京,能華,東佑,祥明,雲山,錦明,道光,
觀正,會梵,慧周,雪峯,雪山,碧山,月峰,
一雲,瑞峰

中央宗會 議長 始 覺
首席副議長 法輪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 山
副院長 瑞虎
委 員 惺應,晩愚,六和,松憲,淸虎,慧學,智峰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杲峰
委 員 哲悟,蓮虛,曉門,晩松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正 雲
副委員長 智海
委 員 法一,智勤,寶月
總務院長 常 眞
行政副院長 能解
企劃室長 永範
總務部長 道惺
敎務部長 正眼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圓悟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道輝
社會部長 道輝
弘報部長 呑默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社會福祉院長
副院長
佛敎文藝院長 智虛
副院長 六和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淸湖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龜巖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振話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承潤

종 도 일 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